

7 광주일보 제17594호 2006년 11월 6일 월요일

## 노래방 도우미 단속 법적용 실효성 논란

경찰, 유흥주점선 적발해도 처벌 못해

지난달 29일부터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 도우미의接客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음약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약산업법)이 시행됐지만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부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을 드러내 법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폭력을 행사한 임모(18)군과 도우미 나모(여·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이날 새벽 4시에 광주시 북구 유동 'M 노래방'에서 나씨 등 도우미 4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씨가 "미성년자들이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신다"며 꾸짖자 술잔을 깨서 위협하고 술값 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도우미 나씨는 임군 먹살을 붙잡는 등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 양모씨(여·51)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나씨 등 도우미들은 최근 시행된 '음약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폭력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이 유흥주점 허가를 낸 뒤 노래방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경우 도우미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식품위생법' 시행령(7조 8호) 상 유흥주점은 접대부·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 및 노래방은 고용할 수 없다.

'음약산업진흥법'은 노래방에서 도우미가接客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유흥주점업=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여종업원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노래방이나 단란주점과는 달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다.

## 선암사에 방화 시도 스님 입건

순천경찰은 5일 태고종(太古宗) 총무원 김모(33) 스님을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스님은 지난 3일 오후 4시에 동료 승려 5~6명과 함께 순천 선암사(仙巖寺) 종무소(宗務所)에 진입하려다 선암사 측 승려들이 막자 경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신임 주지 임명과 재산권 등 종단(宗團)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태고종 총무원 측과 선암사 측은 이날 또다시 충돌, 이모(62) 스님이 부상을 입고 순천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엔低'에 울상... '油폭탄'에 휘청



화순군 도곡면 서경천씨의 국화 재배 비닐하우스. 서씨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연탄 보일러로 시설을 바꿨으나, 최근 엔화 약세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입동(立冬)을 앞두고 기온이 푹 떨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시설재배 농가가 난방비 부담에 울상이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전체 영농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데다, 최근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가격이 상승, 판로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4일 오후 5시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날이 어둑해지자 이종근(57)씨는 토마토를 살펴러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토마토는) 아간은 18도, 낮엔 25~28도 정도로 맞춰야해. 더울 때가 마음이 편하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못 가꾸면 재값도 못 받아. 근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 난방비 비중 높아지고

## 일본 수출량도 급감

## 투자비 건지기도 힘들어

이씨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하우스 바깥에 두 겹으로 비닐을 둘러싸고, 부직포로 된 커튼을 끼워넣었지만 적정 온도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3일 전부터 '열풍기'(熱風機)를 틀기 시작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우스 5동(약 1천800평)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하루 500ℓ(ℓ 당 500원)의 기름이 들어간다. 출하가 끝나는 12월까지 두 달 동안 드는 비용만 약 2천만원. 지역마다 쓸 수 있는 기름 양이 제한돼 이마저도 넉넉하지 않다. 전남지역에 지난해 33만9천ℓ가 공급됐던 면세유는 올 10월 현재 22만9천ℓ에 그쳤다.

문제는 불과 두 달 난방비가 1년 농사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 한 박스(10kg)당 1만2

천~1만3천원(도매가)을 받아도 수입은 3천600만~3천9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농약·인건비 등을 빼면 순수소득은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곳에서 20년째 농사를 지어온 김길현(51)씨. 김씨는 3년 전부터 추운 날씨에 잘 견디는 '한라봉'으로 작목을 바꿨다. 방울토마토와 달리, '한라봉'은 영상 5도 이상만 유지하면 잘 자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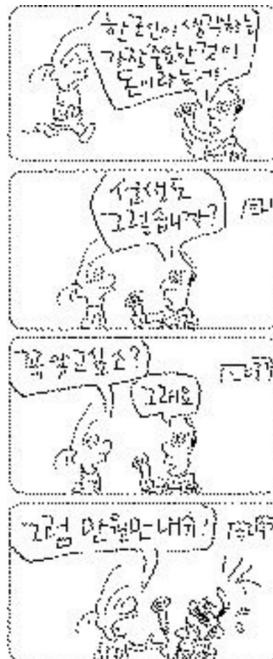
도곡면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약 200곳에 면적은 20여만 평. 하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파프리카·토마토 등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난방기를 연탄·목재·전기온풍기로 교체하거나 부직포를 설치하려는 농민도 많지만, 행정기관의 지원(광역단체 30%, 지자체 30%)이 부족해 여의치 않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31명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신청했으나 4명만 지원금 600만원씩을 받았을 뿐이다. 화훼 농가가 많은 광산구는 예산 부족으로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해 희망농가는 1천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판이다.

나무 보일러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홍기연(57·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씨는 하우스 2천평에서 재배되는 전량을 일본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예전 1천원에 100엔이던 '원·엔 환율'이 800원에 100원으로 하락해 수출 가격이 그만큼 올라 판로에 애를 먹고있다. 사정이 좋을 때는 5천만원 정도 순수입을 내기도 했지만, 올해는 투자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다.

홍씨는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빛이 1억원 정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大法 '손 이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업소 여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손으로 성적 쾌감을 주는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 업소(속칭 '대탈방')도 성매매 알선 등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첫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탈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뤄진 영업 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은 장소, 행위자들의 차립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 /연합뉴스

## 중국산 쌀 국산과 섞어

# 1,640여t 부정 유통

## 화순 모 도정공장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부정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지난 8월부터 수입쌀 유통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모두 1천640여t(시가 30억원 상당)을 전국에 부정 유통시킨 화순의 J도정공장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J도정공장이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내에 유통시킨 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적발된 것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이 업체는 수입쌀을 국산과 섞어도 육안으로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J도정공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모 업체로부터 중국산 수입쌀 978t(시가 13억8천902만원)을 구입, 중국산과 국산을 65대 35 또는 30대 70의 비율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공급, 지금까지 모두 2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업체 대표 김모(33)씨 등 4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에서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1천600여 건, 미표시 1천300여 건이 적발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부동산 사기 2억 편취

## 사이비 기자 구속영장

광주 동부경찰은 5일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이 가로챈 A일보 전 편집국장 김모(42)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이모(60)씨로부터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으면 비싼 값을 받게 해주겠다고 4회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또 광주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게 두뇌개발 개념으로  
새로운 첨단보청기 기술에 도전하라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